

교회소식

1. 2월 7일부터 '예수 중심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통독 방법:

1. 구약성경 개관을 시청(주 1회)
2.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시청(각 권 15장에 대한 설명)
3. 창세기 매일 3장 정독
4. 성경 읽기 표 작성

2. 2022 대심방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살피기 위한 한 주간 연기하여 2월 8일부터 공동체 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화, 수, 목, 금 / 심방 계획서 준비).

3. 전교인 야외 예배를 2월 7일(월)에 공동체별로 갖습니다. 야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36 Sylvan Park Avenue, Milford, Auckland

주관: 행사 진행부

4. 해저 화산 폭발로 큰 재난을 당한 통가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헌금을 하실 때 반드시 헌금 봉투에 '통가 재난 헌금'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 예배 후에 루마니아와 바누아투 공동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네팔과 베트남 공동체입니다.

6. 각 선교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각 공동체장들은 성전 이전을 위한 합심 기도 공지를 공동체 식구들에게 다시 알리시기 바랍니다(매일 밤 9시).

8. 목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February

교회사역일지

2월 7일(월)
성경통독 시작
야외 예배
2월 8일(화)
대심방 시작
2월 15일(화)
인도자 성경공부(Zoom)
2월 27일(주일)
제직회

기도순서

2월 6일 (주일)
김교섭 장로
2월 9일 (수)
가정 예배
2월 13일 (주일)
김병진 목사
2월 16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고석승, 박진영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5호 2022.01.30

주일예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 99:9 인도자

*찬송 35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3장 다함께

대표기도 장경희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25:1-11 인도자

찬양대 찬양 면류관 벗어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아브라함의 죽음이 주는 교훈 이태한 목사

찬송 43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411장 (1,3절)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영하 20도였고 오늘은 날이 풀리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침에 학원 가는 길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무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12월 31일 새로운 장소인 교회에서 목사님 가정과 몇몇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고, K국 전통음식인 베쉬바르막(Beshbarmak)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씩, 한 개인씩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일어난 일: 1월 초 E의 딸 B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 함께 모였는데 그날 저녁 도시 중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스과 석유 가격 인상으로 정부에 불만을 외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군인과 경찰들이 길목을 지켰습니다. 도시로 들어오고 나오는 외곽 도로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이 끊어졌고 은행과 가게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에 차가 눈에 뜨게 줄었습니다. 통금이 시작되었고 도시가 고요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가방 하나랑 비행기 탈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라다 들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을 2:21-23)

새해 첫날 E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말씀이 최근 태풍의 눈과 같은 상황에서요 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일상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힘을 내겠다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곳에서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살기를 간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매일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섬기도록
2. 교회는 다시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상황이 안정되도록

목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실)

찬	양	-
성	경	마가복음 1:2-7
설	봉	광야에 외치는 자
	교	이태한 목사
기	도	-

2022년 1월 2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내니 두려워말라> 마가복음 6:45-52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45)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46). 제자들이 힘겨운 풍랑을 만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48).

예수님은 곧 떠나야 하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삶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 풍랑을 겪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알리고 두려움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요 13:36)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요 14:1)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않을 때에라도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을 행하실 것과(요 14:13)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주실 것을(요 14:27)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일 더 큰 바다로 나가게 하기 위해 오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뜻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 (요 6:17): 날은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주님을 잊고 풍랑과 무력하고 답답한 현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도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으며 유혹 받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 (6:52):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나도 고난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주님을 잊게 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마음에 군살이 붙은 영적 비만으로 마음이 두꺼워지고 둔해집니다.

3) 믿음이 적기 때문 (마 14:31):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없지만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되니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위로는 됩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벳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듯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풍랑을 겪으며 좌절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롬 8:26) 예수님은 무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풍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아픔과 좌절과 허물을 보고 계시며 알고 찾아와 주십니다(48). 주님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찾아와 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삶입니다. 불신자와는 달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시 23:4).

갈릴리 호수와 같이 일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그 어떤 풍랑 중에도 우뚝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랑이는 바다가 아닌 바다와 산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며(시 121:1-2) 위로와 도움을 얻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온전한 예배 장소가 주님의 은혜로 찾아지도록.
2.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재난 당한 통가에 도움의 손길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도록.